



효사랑선교회가 제2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세계난민주일 지켜 달라

세계복음연맹(WEA)이 세계난민주일을 맞아 전세계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다. WEA와 글로벌 파트너 Refugee Highway Partnership(RHP)은 공동으로 오는 6월 15일과 22일을 '세계난민주일'로 지정하고, 전세계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난민들과 강제 이주민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4,2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전쟁·폭력·핍박을 피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세계난민주일은 '세계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 기독교인들이 전세계 난민들의 복지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다.

WEA는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난민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RHP와 협력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난민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들과 사실들, '난민 하이웨이' 지도, 성경에 나온 강제 이주자들의 이야기, 특별기도제목,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다.

제프 터니클리프(Geoff Tunnicliffe) WEA 총재는 "기독교인들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번 헌신 주일의 기회를 통해, 강제로 추방당한 이들 편에 함께 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토마스 멩 기자

강혜진 기자

“신앙유산 물려준다” 효 글짓기 그림 시상식

효사랑선교회, 참가자 66명 전원에게 상장 수여

효사랑선교회가 제2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7일 오전 10시 풀러튼장로교회(노진걸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가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찾고 부모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본을 보여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신

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실시했으며, 시상식에서 효 글짓기 20명, 그림 46명이 상을 받았다. 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참가자 66명 전원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김홍권 목사와 박미희 목사의 사회, 남승우 목사의 개회기도, 김영찬 목사의 개회사와 인사말씀, 차

세대연구소 소장 송규식 목사의 축사로 시작했다.

축하공연에서는 CTS어린이합창단의 합창과 서미현 양의 플룻 연주가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그림 심사위원장 Daniel Yun의 심사평에 이어 그림 대상에 Priscilla Shin, 최우수상에 Joanna Kim, 우수상에 Joseph Han, Sarah Jones, Daniel Dan Lee, Paul Jaewon Shin 등 10명이 특별상, 30여

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효 글짓기 시상에 앞서 Seed of Worship 어린이 뮤직 댄싱팀이 경쾌한 댄스로 축하의 열기를 더했다.

글짓기 심사위원장 임영호 목사의 심사평에 이어 글짓기 대상 Esther Yoo, 최우수상 Hannah Seo, Sherryn Sim, 우수상 Alex Cho, Sijun Hwang, Joshua Oh, Melody Yoon. 특별상 5명, 장려상 8명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노트북과 삼성 태블릿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또 후원 단체인 오픈뱅크의 부에나 팍 지점장인 Sunnie Chun 씨가 우수상 수상자에게 직접 시상해 눈길을 끌었다.

SPU 총격사건 희생자 한인 폴 리 군 애도 물결

지난 5일 시애틀 퍼시픽 대학(SPU) 총격사건으로 숨진 학생이 포틀랜드 출신인 한인 학생 폴 리(19) 군으로 밝혀지면서 한인 사회에 애도 물결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폴 리 군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웃음과 힘을 실어주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폴의 형 앨버트는 페이스북에 "폴과 폴이 남기고 간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잘생긴 내 동생, 네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너를 그리워하고 사랑해. 천국에서 계속 춤 추어라"라는 글을 남겼다. 폴의 고교 시절 일본어 교사였던 브라이언 밴거터는 "폴은 3년간 교실의 빛이었고, 폴 옆에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SPU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시애틀 웨스트처치의 유진 조 목사는 "교회를 방문해 교제 가운데 함께 했던 시간과 그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천국에서 잠평안 가운데 안식에 거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 목사는 "이번 사건은 시애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지만 이로 인해 우

리가 절망하고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시애틀 지역 사회에 널리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애틀 웨스트처치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희생당한 학생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다.



숨진 폴 리 군

환을 재장전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최루 스프레이를 뿌린 후, 제압한 이 대학 4학년 존 마이스(22) 군의 행동도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마이스 군의 지혜로운 판단과 용기가 없었다면 더 큰 희생자를 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독실한 크리스천 마이스 군은 학교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평소 안전을 위해 최루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인인 아론 이바라(26)가 탄

김 브라이언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 \$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F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목회자 사모 힐링 캠프
 Inland Church
 www.inlandchurch.org
 회복된 사모 행복한 목회
2014.7.13(주일) - 15(화) 2박 3일

- 참가대상: 남가주에 있는 개척교회 목회자 사모 30명
- 주 제: 회복된 사모, 행복한 목회
- 강 사: 황순원 사모 (CMF 가정 선교원 원장)
- 참가비: 무료 (교통편을 제외한 숙식 및 제반 프로그램 제공)
- 참가신청: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 FAX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www.inlandchurch.org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문성진 목사 (714-876-8812, doorgori@inlandchurch.org)
- 주 소: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Tel: 909-622-2324/Fax: 909-622-1480)

PASTOR'S WIFE HEALING CAMP

미주장신대 제34회 졸업식 거행

이상명 총장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갖고 비상하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제34회 졸업식에서 4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 지향적 학교’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난 34년 동안 목회자들을 배출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2014년도 졸업 감사예배 및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다.

지난 6월 7일(토) 오전 10시에 가나안교회(이철 목사)에서 열린 감사예배는 학생처장 박종기 목사의 사회, 서남노회장 이선영 목사의 대표기도, KPCA 총회장 노진걸 목사의 설교, 이사장 김인식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노진걸 목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마태복음 7장7-8절)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 목사는 “내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3개월에 500달러를 받고 사역을 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후 40년 이상을 사역할 수 있는 교회의 터가 마련됐다”며 “회고해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

착하지 않고 사역에만 전념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 졸업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강조했다.

제2부는 학위수여식과 학사보고, 상장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이상명 총장이 격려사를 했다.

이 총장은 “배움의 공동체가 지닌 생명력은 역사와 전통에 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이 영성과 지성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위로 비상해 올라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 47명이 졸업했으며, 총회장상에 원종록, 이사장상에 서영아, 총장상에 박화원, 박노현, 동문회장상에 박화원, 박용규 씨가 각각 수상했다.

토마스 맹 기자



KYVC의 전통은 사무총장, 김영대 이사장, 김영길 대표가 이번 찬양제를 준비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청소년 장학기금 위한 찬양제 열린다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자녀사랑찬양제가 남가주 한인 청소년비전센터(KYVC) 주최로 열린다.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부설로 6년 전, 설립된 이 센터는 한인 차세대와 치유와 부흥, 비전을 목표로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세리토스고등학교, 사이프러스고등학교, LA고등학교 등 5개 공립학교에 크리스천 학생 클럽을 조직해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모닝스타합창단 등 문화사역도 하고 있다.

이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교회들의 연합’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학교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는 점이다. 5개 학교에 중부지역 교회 EM 사역자로 구성된 선교사를 파송해 한인 학생들을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만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본 사역이다. 이에 더해 각종 연합 사역도 이뤄진다. 지난 2012년에는 닉 부이치치를 초청해 전도대회를 열었고 2013년에는 제1회 자녀사랑찬양제를 개최했다.

올해는 제2회를 맞이한 찬양제다. 이사장 김영대 박사는 “건강한 가정은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자녀들은 더 큰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 주고자 이번 찬양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월서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 Los Angeles CA90005)에서 6월 15일 오후 6시에 열리며 모닝스타합창단, 브니엘여성합창단, 서울대학교 코랄, 송의합창단, 송실OB합창단, 연세합창단 등 전문 합창단과 감사찬양교회,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월서연합감리교회 성가대가 공연한다.

이 행사 관람은 무료이며 헌금 시간도 별도로 없다. 주최측은 참석자들이 향후에 후원금을 보낼 수 있도록 봉투를 배부할 계획이며 장학기금 조성에 뜻을 모은 개인 및 사업가들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대표 김영길 박사는 “이번 행사의 장학금은 학생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주는 형식을 벗어나 실질적 필요에 기초해 지급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에게 악기 구매 비용을, 레슨을 받고 싶은 학생에게 레슨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김 박사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끝나는 일회성 장학금이 아니라, 향후 학업에 필요한 장기적 도움까지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혜 학생들은 이 단체 내 모닝스타합창단 등을 통해 각종 도움을 얻게 된다. 문의) 714-904-6298 김준형 기자

월드미션대, 제23회 학위수여식서 47명 졸업

송정명 총장, “서부의 명문대학 되는 것이 꿈”



월드미션대학교 제23회 학위수여식이 7일 동양선교회에서 거행됐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제23회 학위수여식을 7일 오후 1시에 동양선교회에서 거행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인도 임성진 부총장, 기도 송운철 교수, 명예박사 학위 수여, 학위 수여, 총장 훈화 송정명 총장, 졸업생 감사 최은중 학우, 축도 임동선 설립자 순으로 진행됐다.

송정명 총장은 “꿈을 가진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 건디어 내며 인내해

나갈 수 있다. 꿈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종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마틴 루터 킹의 꿈은 그가 세상을 떠난지 40년이 지난 2008년에 미국에서 실현됐다. 미국이 독립한 지 232년 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2012년에는 재선까지 되었다. 나도 월드미션대학교가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서부의 명문대학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훈화하였다.

졸업생 가운데 대표로 답사를 한 최은중 학우는 “학교에서 배운, 신학의 다양한 과목들은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유익을 주었으며, 학업적으로도 깊은 만족과 보람을 얻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의 모습을 좀더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저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은혜와평강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축제

은혜와평강교회(곽덕근 목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사축제를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3일 동안 개최한다. 20일에는 오후 8시에 교회당에서 캠페인 미주대표 문영명 목사를 초청해 ‘선교의밤’을 개최하며, 21일에는 오후 5시에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단, 아파빌레 어린이 합창단, 은혜와평강교회 찬양대 및 찬양팀이 출연하는 ‘찬양의 밤’을 연다. 22일 주일에는 오전 11시 20분에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축제를 개최한다. >교회 주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전화: 818-894-9266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KCC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귀하와 교회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본 미기총 제16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사오니
대의원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전 미주 교회협의회 회장, 증경회장, 각 교단장, 증경교단장, 공인된 기독교단체장 선교기관 대표
제목: 제16회 미주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 건

1. 주 제: “건강한 이민교회를 위한 진단과 처방”
2. 주제강사: 박희민목사, 윤사무엘목사, 김선배목사, 조갑진목사
3. 성회강사: 원팔연목사(전주 바울교회)
4. 일 시: 2014년 7월 8일(화) ~ 10(목)
5. 장 소: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714)446-6200, (714)446-6207(Fax)

6. 등록비: \$100(마감일 - 6월 25일)
7. 참 조: 공항에서 총회장소까지 교통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항공 일정을 등록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발공항, 도착공항(SNA:존웨이공항 or LAX), 항공편명, 도착시간,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총회후 출발공항(SNA 존웨이공항 or LAX) 및 출발시간 등을 은혜한인교회 김대섭행정목사(dskim143@gmail.com)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 총회

대표회장 임형태목사/ 상임회장 김동욱목사/ 사무총장 황경일목사
공동회장 한기홍목사(수석, 서부), 정인수목사(남부), 김중덕목사(동부), 유영일목사(중부)

문의처: 임형태목사(대표회장) ☎ 719.590.1520 김대섭행정목사(은혜한인교회) ☎ 714.336.4378

“1.5세 중요하다 말은 하는데 현실은...”

고립된 청소년들 사랑으로 품어, 이민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저스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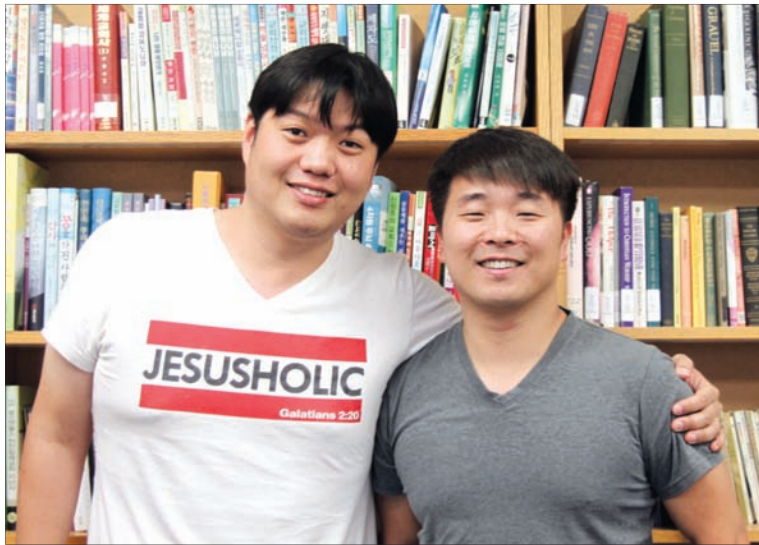
이민교회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줄고 있다. 교회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이들의 부재로 이민교회 위기론이 끊임 없이 거론되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민교회의 미래는 1.5세 한어권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1세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고 2세 예배에도 참석은 하지만 쉽사리 어울리지 못해 방치되는 것이 문제다. 그 결과 이민교회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교회 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2세들에 비해 1.5세 한어권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이민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찌감치 이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다 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선교단체 지저스홀릭 무브먼트(Jesusholic Movement)가 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가정 문제로 부모와 친구들과 갈등을 빚어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이민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저스홀릭의 두 리더 정훈주 전도사(풀러신학교 M.A.), 김상훈 전도사(바이올라대학교 M.Div.)를 만나보자.

-선교회 소개를 해 달라.

헌돌선교회라는 이름으로 2003년에 설립됐다.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작



김상훈, 정훈주 전도사

년부터 선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저스홀릭 무브먼트’로 이름을 바꿨다. 말 그대로 ‘예수중독자’라는 뜻이다.

여태껏 문화사역을 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젊은이들에게 더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교재를 만들어 제자화를 목적으로 UP(Urban Pilgrim) 훈련을 하고 있다. 도심 속에 순례자들이란 뜻으로 지난해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복음으로 세대를 이어주는 선교적 제자공동체를 지향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 줘 자기만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이들 스스로 고립돼 있다는 것이다. 어디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어른과 청소년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인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후에 교회와 직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교회 비전은 러브(love), 리브(live), 리브(leave)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자로 세워지고, 지역사회와 온 땅이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모임에서는 강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교하고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올해 UP훈련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착오도 있고 하나씩 만드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교회와의 연계를 갖고 청소년들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훈련 인원과 연령대는 어떠한가.

10학년부터 20대 후반까지 32명이 훈련받고 있다. 목요일 저녁에 한번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가르치는 선교회 간사들을 선교사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 주중에 리더들이 소그룹 모임을 갖고 도움을 준다. 사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케어해 주는 기독교 단체가 거의 없다. 현재 선교회 차원으로 1.5세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는 저희 밖에 없다.

1.5세 한어권 청소년들 대부분이 미자립교회에 다니고 있다. 한어권 청소년들이 영어권 예배에 들어가면 적응하기 힘들고, 80%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난다. 미자립교회 아이들이 선교회에 많이 와서 훈련을 받았으면 한다.

이들이 1년 후에 다시 파송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교회를 성장 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선교회가 세워진지 10년이 넘어가니 훈련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돌보게 된 것이 큰 변화다.

-지역 교회와의 마찰이나 갈등은 없었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선교회가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말해서 교회의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데에 딜레마가 있었다. 그런 와중에 선교회 내부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깨어지는 시간을 통해 ‘여태까지 우리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구나’라는 각성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제대로 죽자. 우리 이익을 취하고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이들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전환을 하게 됐다. 그러자 교회가 문을 열고 힘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선교회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

한 예로 세계대교회의 청년 2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훈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간증한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좋은 모델이 되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선교단체에 가는 것을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다. 저희는 청년들이 훈련을 받으면 당연히 교회에 돌아가도록 해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돕는다.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교회에서는 계속 외부 사역자들을 초빙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전도 부분은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나.

주로 관계전도다. 삶 속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이스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선교회는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찬양 인도팀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술 분야와 캠퍼스 기도 모임을 기획하고 있고, 5개 교회와 네트워크해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회에 청년들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민교회들도 청년들에 대해 같이 위기 의식을 갖고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1세 목회자들에게는 청년에 대해 대안이 막연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저희는 10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해 왔기 때문에 교회를 도울 수 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주소: 1814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18
▷문의: jesusholicmovement.com
jesusholicmovement@gmail.com
토마스 멩기자



‘지저스홀릭’ 모임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리판서: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4일~10월~서부인양업)

T.213.453.6624 (마리탕마켓일구)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	-----------	------------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한국교회사 이야기>

팔방미인 언더우드 선교사(1)

한국에 안수를 받은 목사 선교사로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이다.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적 분위에서 자랐다.

언더우드가 12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저지에 정착했다. 그들 가족은 화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언더우드는 1877년에 뉴욕대학교 수학 후, 화란 개척교회 계통 뉴브루스워싱턴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닐 때 하루 5시간만 자고 나머지 19시간을 학업과 여러가지 종교적인 일에 활용했다. 그의 이런 정열적 삶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도 계속돼 결국 건강을 상실하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원인이 된다.

그가 신학교 2학년 때 한·미조약이 체결됐다. 그의 급우 중 하나가 이 기사가 실린 신문을 오려 교실 벽에 붙여 놓은 것을 언더우드가 읽었다. 이것이 그가 자기 전 생애를 바쳐 일하게 될 한국과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다.

1883년 10월 언더우드는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열린 미국 신학교연맹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여기서 감리교인 아펜젤러(H. G. Appenzeller)를 만났다. 그는 언더우드와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온, 그래서 일생 동안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된 사람이다.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는 네덜란드 개척교회 뉴브루스워 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선교사 지원을 결심한 터여서 이를 거절하고 선교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가 신학교에 다닐 때 당시 일본 명치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올트만(A. Altmann) 목사가 방문해 연설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는 한국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그곳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 1,300만을 위해 일할 선교사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를 지원하고 있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그는 화란 개척교회 총회에 가서 인도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지만, 그 교회는 그런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선교사 파송이 여의치 않자 뉴욕의 한 교회의 초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막 우체통에 집어 넣으려던 찰나 “한국에 갈 사람 없느냐?” “한국은 어찌할 타이나?”하는 쟁쟁히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언더우드는 이 소리에 편지를 도루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한국에 가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이번에는 미국 북장로교회 본부를 찾아 인도 선교사 파송을 제안했다. 본부는 인도에는 계획이 없으나 한국에 간다면 파송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언더우드는 한국도 여차피 아시아이므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다.

언더우드는 화란 개척교회 목사로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 본부로부터 한국선교사 파송을 받았다. 그때 그는 약혼을 하고 있었다. 언더우드는 약혼녀에게 자기가 한국 선교사로 파송 받았노라 말하고 결혼 한 후 같이 한국에 나가 선교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약혼녀는 선교에 뜻이 없었다. 그녀는 언더우드에게 한국에 가는 대신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 선교를 지원하자는 역제안을 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선교사 결심이 굳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언더우드는 그녀를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급기야 언더우드는 최후통첩을 했다. 나와 결혼하고 한국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 약혼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선택하라 했다. 그녀는 심사숙고 끝에 파혼을 선택했다. 언더우드는 어쩔 수 없이 결혼과 가정을 포기하고 한국 선교행을 택했다.

약혼녀로부터 파혼 선언을 들은 언더우드는 25세 총각 선교사로 1884년 12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이듬해인 1885년 1월,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해 그곳에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한국에 들어가는 배를 기다리며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마침 기선 하나가 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언더우드는 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하여 4월 2일 부산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루를 보낸 후 제물포로 출발하여 4월 5일, 그러니까 바로 부활주일 오후에 비 내리는 제물포에 도착했다.

이 배에 전에 하트포드에서 열렸던 미국 신학교연맹대회 때 만났던 아펜젤러 부부가 미국 북장로교회의 파송을 받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탑승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동시에 한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장로교

회와 감리교회 선교사가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러 목사는 그때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 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엮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생명과 자유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주한 미국 대리 공사 푸크는 언더우드의 입국은 허락했으나 아펜젤러 부부의 입국은 만류했다. 이유는 당시 아펜젤러 부인은 임신 중으로 불편한 몸이었고,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갑상선염 여진으로 정국이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 만삭의 외국 여자가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푸크는 일단 그들에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했다.

할 수 없이 아펜젤러 부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언더우드만 제물포에서 이틀을 지낸 후 서울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 이제 개신교 목사가 상주하게 됐고, 개신교 선교시대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언더우드는 몇 달 전 입국해 일하고 있던 의사 알렌 선교사의 영점을 받았다. 언더우드는 알렌이 갖 시작한 제증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첫 사역을 시작했다.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청일전쟁이 끝난 후, 천진조약이 맺어져 전문의 기운이 사라지고 정치적 안정이 찾아왔다. 일본에 간 아펜젤러 부부는 약 두 달 후에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다. 그가 오기 얼마 전 감리교회 목사이며 의사인 스크랜튼이 내한했고, 아펜젤러 부부 입국 시 스크랜튼의 모친 메리 스크랜튼이 입국하여 감리교 선교 시대로 개막됐다.

언더우드의 내한으로 한국에 장로교회 선교 역사가 비로소 첫 빛을 올리게 되었다. 그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장로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업적을 남기게 된다. 다방면에 수많은 일을 이룬 그를 일컬어 ‘팔방미인’(man of all seasons) 선교사라 일컫는다.

<계속>



언더우드 선교사

KCCD 전국대회서
연합 통해 자신감 얻어



기자회견 참석자들.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박종대 이사장, 임혜빈 회장.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개발협회(KCCD)가 3일 오후 1시 30분에 협회 사무실에서 ‘제 7회 라이팅 더 커뮤니티’ 전국대회 참석 결과를 보고했다. KCCD는 지난 5월 19일(월)에서 21일(수)까지 워싱턴D.C. Gallaudet 대학교 내 켈로그 컨퍼런스 호텔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AAIP) 기독교 커뮤니티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부 협력을 통해 여러 자원을 활용하고 AAIP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국가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정책을 건의했다.

이날 KCCD의 임혜빈 회장은 “이번 백악관 방문을 통해 각 부처의 대표들과 이민개혁법, 인신매매, 정신병, 마약 등 아테계 현

안들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15명의 차세대 리더들도 참여해, 연합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대회가 열리기 전에 임 회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주류사회는 우리를 보지 못한다. 우리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대 목사(KCCD 이사장)는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테계 각 나라의 1세대 및 차세대들이 참여해 함께 하면 큰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영화 음악과 함께 방학을!!!



은혜한인교회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현장

은혜한인교회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해 영화음악 콘서트 6월 21일 오후 7시 교회 비전센터에서 연다. 오렌지카운티 심포니 악장으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정

승재 씨가 지휘하며 50여 명의 단원이 디즈니 영화, 스타워즈, 캐리비안의 해적 등에 나온 영화음악을 공연한다. 티켓은 무료다. 문의: 714-318-2085, www.gmiorchestra.com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하,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빈곤

요한계시록 3:14-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계시록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65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동쪽으로는 에게해 연안으로 가는 에베소가 있고, 남쪽으로는 시리아로 가는 브루기아 지역의 관문으로서 널리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직조 사업이 왕성했고 안약을 만드는 풀이 자생하는 곳으로 안약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여유로운 형편의 삶을 살다보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은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들이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렇게 되어 지기를 믿고 동의한다는 아멘으로 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 얻기를 소원하시며 하늘나라를 물려주시길 애та게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예수님)으로 창조해 내실 때에 그 근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듯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항상 지켜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그들이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다 했습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처럼 신앙에 믿음과 내세소망의 확신이 없으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遺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갈라지면 우리에겐 지옥밖에 없습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이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은 육체적인 세상 조건만을 중요시하여 그들의 신앙은 끝이 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죽어 있었기에 예수님은 영적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곤고(곤란하고 괴로움)로 인해 지옥불에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련한 처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서 심령은 죽었고 유행불에 던져지기 직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멀어 육신의 세상조건만을 바라보고 부요하여 부족한 함이 없다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18절의 “내가 너를 권하노니”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아량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는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단련시키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는 그 보혈의 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의(義)의 세마포 예복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악하고 거짓된 무슨 나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지게 하실 때에 중심으로 애용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 그 엄청난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서 예수님

이 입혀 주시는 것이 하얀 세마포입니다. 이것을 입으면 전날에 지은 죄와 허물, 괴로움이 이 세마포로 인해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완전한 구속(拘束)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육신의 탐욕과 허욕을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생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어 서둘러서 회개하라고 재촉하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은 무디고 완악한 심령들이 마음 문을 굳게 닫아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일러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문 앞에서 서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애타는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영적 양식으로 먹이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지난날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교회 부흥의 장애 요인이 되고 목자가 목회하는 데 전혀 쓸모없는 자로 예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서 유기될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회개해서 주변 환경과 형편, 원수마귀의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21절)”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여서 권고하고 질책하고 야단을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화인(火印) 맞은 심령입니다. 불로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 자리는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무디고 완악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불로 단련시키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믿고 회개하여 의의 세마포를 입어 지금까지의 죄악을 가지고 오로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가 잘못되면 그 도시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게 되면 나라도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허물어지고 흑암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정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과정).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학사사 한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유년부와 고등부 교육전도사 청빙

Rowland Heights, CA 에 소재한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가 유년부와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청빙합니다.

2세 자녀들에게 영어로 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교육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1)지원 자격

정규 신학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 영어 설교 가능자

2)제출서류

이력서 및 개인 간증

제출기한 : 2014. 6. 21(토)

3)문의 및 접수

전화 : 626) 810-3455

이메일 : beautifulchurch@hotmail.com

아름다운 교회 청빙 위원회

센트럴 침례 신학대학원

LA 분교

한국부 학생 모집

www.cbts.edu

센트럴 침례 신학대학원(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은 1901년에 개교하였으며 1962년에 ATS인증을 받았고, 1979년에 HLC정회원이 된 전통있는 신학대학원이며 미셔널 처치 중심적인 신학훈련으로 한국 교회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학위과정 및 수업료 (1학기)

목회학박사(D.Min.) \$1,200 (학점당 \$200, 졸업학점 30)
 목회신학석사(M.Div.) \$1,350 (학점당 \$150, 졸업학점 75)
 디플로마 \$1,800 (학점당 \$150, 졸업학점 48,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 가능)

전과정 1-20 발급 (졸업 후 OPT 가능)
 박사 3년, 석사 4년, 디플로마 2년

수업방식: 한국어 혹은 영어(통역제공)
 *4-5일 집중수업(주중 4-5일) *4-5주 집중수업(매주 하루)
 *4-5주 집중수업(매주 이틀 3-5시간) *15주 온라인 수업

미국 각 지역 분교에서 강의 실시됨

문의처

서보전 목사: 310.951.3153 (LA 분교 담임)
 본교 한국부 입학처: 913.667.5700 (ext. 120)
 이메일: koreanstudies@cbts.edu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 913.667.5700 F. 913.371.8110
 6601 Monticello Road., Shawnee, KS 66226

교구 심방사역 담당 여전도사님 모심

영혼을 잘 돌보고, 심방 사역에 헌신하신 분
 기도 많이 하시고 겸손하신 분
 희망연령 : 40대 후반-50대 초반이신 분

- ※ 제출하실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서, 추천인 2분 연락처
- ※ 제출기한 : 6.30.2014
- ※ 서류 보내실 곳
- ▶우편 :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Attn : 기획실
- ▶이메일 : gcjc7494500@gmail.com

LA 다운타운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주님의 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http://xe.gcjc.org | Tel: 213-749-4500 | Fax: 213-749-6700

간발효과(Nearness Effect)

“간발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큰 차이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보다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상실감과 절망감이 훨씬 크다는 주장입니다.

올림픽 레슬링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이로 지는 바람에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 패하는 바람에 일찌감치 탈락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패자 부활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연승에 연승을 거듭한 결과 감격적으로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기뻐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은메달을 받은 선수보다 동메달을 받은 선수가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간발의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허탈감 때문에 소중한 은메달의 가치를 놓쳐 버립니다. 은메달리스트가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활짝 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는 거의 포기했던 시상대에 기적적으로 다시 오르게 된 감격 때문에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공항에 30~40분 늦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친 사람보다 1분 차이로 비행기를 타지 못한 사람이 더 큰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학교 성적을 비교하면서 자살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간발의 차이로 상위권 진입에 실패한 이들입니다. 처음부터 공부와는 거리가 먼 학생들은 자살은 고사하고 스트레스조차

도 받지 않습니다. 공부쪽으로는 처음부터 친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결국 간발의 차이로 결정이 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차이가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간발의 작은 차이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동일하게 스승이신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낫고 못하고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은화 30냥에 스승을 판 제자나, 진저리를 치면서 스승의 존재를 부정해 버린 제자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돌이킬 없이 끝까지 배신의 길을 갔고,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인해 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대사도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배신자로 자리매김해 버렸습니다.

작은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가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통찰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동로마제국인 비잔틴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 바로 그곳입니다. 콘스탄티노폴은 철옹성으로 둘러쳐진 곳이며 그 누구에게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점령 불가능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제왕 술탄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폴의 앞바다는 좁은 만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진입로에 거대한 쇠사슬이 둘러져 있어 해군 전함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 오스만의 제왕 술탄은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쇠사슬을 쳐놓은 곳을 넘어 바다에 다시 배를 올려놓고 선상포격을 감행함으로써 콘스탄티노폴을 점령합니다. 이후로 전쟁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 점령할 수 없는, 점령 불가능한 요새는 없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투가 참 많았습니다. 남북전쟁의 전사자는 남북군을 합쳐서 약 70만 명에 이릅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희생자는 29만명이었습니다. 이를 인구비율로 다시 환산하면 남북전쟁의 전사자는 2차세계대전의 전사자보다 10배나 많은 260만 명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남북전쟁에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을까요? 남북전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 <게티스버그>를 보면 전진하던 북군 병사들이 평범한 목장 울타리에서 남군과 맞닥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울타리 앞에서 대포와 총알이

습니다. 전투의 모든 면을 꿰뚫어 보았던 이순신 장군의 통찰이 자칭 지장이라던 원균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통찰은 사건과 사물을 관통하여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시대를 이끌었던 거목들의 공통점은 통찰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인물의 전제는 통찰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통찰에서 발견됩니다. 완전히 망한 인생 속에 숨겨져 있는 무한의 잠재력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돈, 권력, 명예의 헛점을 꿰뚫어 보시며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임을 분명하게 보시는 해안의 소유자였습니다. 읽고 또 읽어 아예 외우다시피한 율법. 그렇게 율법을 다루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심은 변죽이는 통찰이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찰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통찰일 것입니다.

통찰은 지식이나 전문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때로 통찰있는 비전문가가 통찰없는 전문가보다 훨씬 나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찰 없는 전문성은 무용지물입니다. 통찰없는 리더십도 무용지물입니다. 통찰없는 용기는 위험합니다.

시대와 사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을 구하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듯 자신의 삶,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하늘의 통찰을 구하십시오. “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통찰을 주옵소서!”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옛날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네 부친의 함자(衡字)가 어떻게 되시는가?”하고 물으면, “예, 저의 부친의 함자는 O자(字)와 O자(字)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함자라는 말은 “존귀하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김 아무개입니다”하고 함부로 부르면, 그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양의 가죽이나 파피루스(갈대 줄기로 만든 종이)에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때까지 사용하지하던 먹물을 버리고 새로운 먹물을 사용하여 기록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

수님의 이름에 흠이 가는 일이라면, 바울은 죽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도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무가치하게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다는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그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그 자신이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치 귀한 물건을 담아놓은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 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사무엘상 2:30)

나 존귀하게 여겼는가를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하여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립보서 1:20-21)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존귀하신 예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0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 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달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됨,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213-500-4471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사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올려서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유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서 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서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노증	아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전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집안적인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213-258-5321
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피와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병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재(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나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취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든다는 취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취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달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락(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졌으며, 신생아기도 번을 잘 보고 잘 자고 툄들했었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판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호(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정도 들어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가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달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건강과 성경 이야기 8

인양하세요 건강칼럼 여덟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기운이 다하여, 기운이 쇠하여, 기운이 진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생기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기는 사람은 코로 숨을 쉬고, 그 생기는 피를 만들고 어혈을 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일단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심장고 대장이 숨을 쉬게 되고 심장은 몸 안에서의 각종 작용을 하고 대장은 몸 밖의 피부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심장 계통이 좋지 않은 분들도 그 원인은 생기가 부족해서 어혈을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게 될 때 여러가지 심장 계통의 질병을 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기를 우리몸에 끌어들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흙에서 땅 기운을 받은 식물과 그 씨앗을 먹어서 땅 기운을 받은 식물과 그 씨앗을 먹으면 됩니다. 식물이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되지만 오늘은 아주 좋은 땅기운이 어떤 기적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든 사람, 헬기가 왕성했던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들 도 삼손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가 그 후계를 이어서 다스렸고, 여호수아 이후에 후계가 없었는데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가나안(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지요)을 각 지파,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이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삼손같은 사사들이 다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손은 약 20년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힘이 얼마나 컸는지 사사를 맨 손으로 죽였고, 또한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무기 없이 만나기 턱뚱으로 죽였고, 가사성이라는 성문 문짝들과 두 실주와 빗장들을 뽑아서 산 꼭대기에 올렸고, 나중에는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적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5일 경에 가디나 노인 아파트에서 기적의 영양제 m3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시라고 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팔)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201.953.0022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본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본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팍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954.985.3928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요15:7)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총회와 재외총회가 제36차 총회에서 통합했다.

예장 해외총회-재외총회 통합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총회와 재외총회가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LA 한인타운 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총회에서 해외총회란 이름 아

래 통합했다. 이 총회에는 양 교단의 총대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황규철 총무, 김영남 서기, 최우식 회록서기

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 총회에서는 윤성원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문의 : 626-644-5782(윤태근 목사), y53126@daum.net



자생한방병원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성도들과 함께'

자생한방병원 미주법인 OC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교회 초청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의 성도 40여 명이 이 병원을 찾아 무료로 진료받았다.

자생한방병원의 각 과 전문의들은 척추관절 및 일반내과 질환에 대해 상담 및 한방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디스크 질환, 노인성 척추질환, 청소년 척추측만증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집에서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척추질환 자가테스트, 생활요법 및 운동법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라팔마연합감리교회 김도민 담임목사는 "바쁘고 고된 이민생활로 인해 지친 교인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미주법인 공동대표 이상화 원장은 "OC교협의 의료분과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면서 "관심이 있는 교회나 단체는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월드미션대학교가 '만남, 감동,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월드미션 음악회

"만남, 감동, 그리고 희망"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정명 목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만남, 감동,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6월 6일(금) 저녁 7시 30분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윤임상 교수(음악과 학과장)의 지휘 아래 월드미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Academic Festival Overture)"의 경쾌하며 젊은 패기가 담긴 힘찬 선율이 연주회장을 가득 채우며 음악회의 막이 화려하게 열렸다.

1879년 독일의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수여한 명예 철학박사 학위에 대한 답례로 브람스가 작곡한 이 곡은, 이 곡을 작곡할 당시 학생들이 즐겨 부른 내 개의 곡을 차용해 친근하고 익숙한 선율로 빛어냈기에 브람스의 곡들 가운데 보기 드물게 경쾌한 곡으로 꼽힌다.

황소명 교수의 연주로 생상(Camille Saint-Saëns)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애절하면서도 역동적인 선율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황 교수의 연주에 눈과 귀를 모았다. 생상의 5개 협주곡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이 곡의 다양한 감정을 황 교수는 깊이 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번 연주회는 클래식 공연 뿐 아니라 현대음악과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하며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재즈 연주자 브라이언 컬버트슨(Brian Curbertson)이 작곡한 "Get it on"을 월드미션대의 하우스 밴드(키보드1 이영관, 키보드2 박희진, 기타 김진수, 드럼 백정렬, 베이스 이병걸)와 이은정 교수가 화려하게 변주해 무대를 달아오르게 했고, 졸업생인 김영해 지휘자와 재학생인 신신미 소프라노가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Die Zauberflöte)" 중 "밤의 여왕(Konigen der nacht)"의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사하며 열기를 이어갔다.

김영해 지휘자의 지휘 가운데, 김일두, 오우영, 김민규 테너가 푸치니의 "투란도트" 제 3막에 등장하는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말라(Nessun Dorma)", 베르디의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La donna e mobile)"를 열창해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보이 소프라노(Boy Soprano: 소프라노의 음역을 소화하는 소년 가수)인 다니엘 김이 영화 미션(Mission)의 테마곡 "가브리엘의 오보에"에 가사를 붙인 "넬라 판타지아(Nella Fantasia)"를 불렀다. 영화 미션에서 활과 창으로 무장한 원주민과 마주치자, 계곡에 앉아 이 곡을 연주하던 예수회 소속 신부 가브리엘의 모습과 때 묻지 않은 소년의 청아한 목소리가 잘 조화됐다.

오페라 곡 뿐 아니라 유명한 뮤지컬 곡과 찬송가 연주도 이어졌다. "오페

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의 테마곡인, 특유의 반음계 코드로 진행되는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을 뮤지컬 형식으로 바꿔 클라라 김과 권상욱 솔리스트가 불렀다.

두 솔리스트의 열정적 무대를 이어받은 피아니스트 윤국형은, 김용재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패니 크로스비(Fanny Crosby) 여사가 작사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Blessed assurance)"를 브라질과 아프로 쿠반(Afro-Cuban: 아프리카계 쿠바 음악, 댄스 리듬을 강조한 대중음악으로 풍가, 봉고 등의 타악기를 사용한다) 스타일로 편곡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뮤지컬 맘미아(Mamma Mia)에 삽입된 아바(ABBA)의 "댄싱 퀸(Dancing Queen)"과 뮤지컬 "페임(Fame)" 중 "내 이름을 기억해(Remember my name)"를 월드미션대의 하우스 밴드의 연주에 맞춰 최윤영, 허지애, 장슬기가 불렀다.

이어진 무대는 재학생 채영석의 지휘로 신선미, 클라라 리, 오우영, 권상욱이 부른 아리랑으로 채워졌다.

이 외에도 이영관 교수의 지휘 아래 최윤영이 "오즈의 마법사(Wizard of Oz)"의 주제곡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를, 윤임상 교수의 지휘 아래 오우영과 권상욱이 비제(Bizet)의 오페라 "진주잡이(Les Pêcheurs de Perles)" 중 "신성한 사원에서(Au fond du Temple Saint)"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함께 부른 후 대학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기도로 연주회의 막이 내렸다.

재학생, 동문, 교수들로 구성된 이번 연주회의 총기획 및 감독은 윤임상 교수가 맡았으며, 김재숙 교수가 연출을, 이영관 교수가 조연출을 담당했다.

1989년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영적 훈련과 학문 사이의 균형을 갖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월드미션대학은 작년 8월에 한인 신학교 최초로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ATS는 허버드, 예일, 풀러, 아주사, 탈봇 등 260여 개 이상의 주요 신학대학원들이 가입된 미국 최고의 신학교육 협력인증기관이다.

이 학교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나침반교회에서 지역 강좌를 개설해 본교와 동일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제공한다. 입학설명회는 7월 14일(월) 오후 7시 나침반교회(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에서 열린다.

> 문의: 213-388-1000, www.wmu.edu 주디 한 기자

CTS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콘서트

남가주의 대표적인 기독교 TV 방송사 CTS America(사장 김중철)는 오는 6월 29일 토론크스에 소재한 El Camino College Marsee Auditorium에서 '2014 희망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물질적 후원이 필요한 복지기관이나 선교단체를 돕기 위해 4년 전부터 시작된 이 콘서트는 출연하는 전 출연자의 무료 재능기부와 관객들의 후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번 콘서트에는, 지난 소치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 때 애국가를 불러

화제가 된 세계적인 테너 최승원 씨와 시각장애를 가진 천재 피아니스트 노유진 양,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켄 아이스, 피아니스트 앤드류 박 교수, 첼리스트 최경은 교수, El Camino Orchestra 등 국내외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수준높은 음악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은 지역사회 회의 홀리스 선교단체와 장애인 가정을 위해 쓰여진다.

> 문의 : 562-565-2234

앞서는 젊은 스타일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미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레이트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찰스 자비에’ 인가, ‘매그니토’ 인가

영화 <엑스맨> ‘다수’ 를 대하는 ‘소수’ 의 자세를 묻다



영화 <엑스맨>의 포스터

영화 <엑스맨> 시리즈는 단순히 ‘초능력’(super power)을 가진 ‘영웅’(hero)들의 액션 활극이 아니다. 이 영화에서 ‘엑스맨’들이 긍정적 의미의 ‘슈퍼 영웅’(super hero)이 아닌, 다소 부정적 의미를 가진 ‘돌연변이’(mutant)로 불리는 것은,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설정이다. 최근 개봉한 <엑스맨-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X-men: Days of Future Past, 이하 엑스맨4) 역시 마찬가지다.

제목에서도 보이듯, 이 영화는 시리즈 중 처음으로 ‘시간 여행’을 소재로 삼고 있다. 먼 미래, ‘정상적인’ 인간들(‘정상’이라는 단어에 어폐가 있지만,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 -편집자 주)은 엑스맨들과 싸우기 위해 엄청난 힘을 가진 로봇 ‘센티넬’을 만들고, 이로 인해 엑스맨은 멸종 위기에까지 처한다. 가치관의 차이로 다른 길을 걸었던 ‘매그니토’(or 에릭 렌쉐어, 이안 맥켈런)와 ‘찰스 자비에’(패트릭 스투어트)조차 한 편이 되어 싸운다.

센티넬의 무자비한 살상 앞에 무력감을 느낀 엑스맨들은, 결국 센티넬의 탄생 자체를 막는 것만이 해결책을 깨닫고 ‘로건’(or 울버린, 휴 잭맨)을 과거로 보낸다. 그리고 이 과거에서 로건은 미래의 키를 쥐 ‘젊은’ 엑스맨들을 만나게 되는데...

<엑스맨>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대결 구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얼핏 매그니토 파(派)와 찰스 자비에 파(派)의 싸움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정상인 VS 엑스맨(돌연변이)’이라는 큰 틀이 먼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정상인을 보는 시각과 대응 방식의 차이로 인해 엑스맨 진영이 앞서 언급한 두 파로 나뉘고, 정상인 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 <엑스맨4>에선 엑스맨들의 가치관 차이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쉽게 이야기해, 정상인들과의 공존 내지 평화적 관계를 추구하는 이가 찰스 자비에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가 매그니토다. 매그니토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자신들에 대한 정상인들의 혐오와 공격 때문

인데, 찰스 자비에도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차이는 일종의 ‘도전에 대한 응전 방식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찰스 자비에에는 끝까지 포용의 자세를 유지하고, 매그니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적어도 이 영화, 곧 <엑스맨4>는 찰스 자비에를 지지하는 듯하다. 어두운 미래를 바꾸는 핵심적인 인물은 명시적으로 ‘미스틱’(or 레이븐, 제니퍼 로렌스)이지만,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 찰스 자비에의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의 어두운 미래도, 알고 보면 매그니토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대부분 우리는 ‘강자가 약자를, 또는 다수가 소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익숙하다. <엑스맨4>에서 엑스맨들은 약자(계제로 보면 엑스맨은 정상인에 비해 분명 강자지만, 센티넬의 존재에서 보듯 정상인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자)이자 소수로 그려진다. 그래서 이들을 짓밟은 정상인들은 자연스레 ‘악’(惡)이 되고,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무엇이 과연 ‘정상’인지, 강자와 다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상이 적었던 건, 이 영화가 그 반대의 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즉, 약자 혹은 소수가, 강자 그리고 다수를 보는 시각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는 찰스 자비에와 매그니토의 생각 차이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자비에에는, 엑스맨의 행동 여하에 따라 그들을 대하는 정상인들의 태도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특정 정상인들을 향한 분노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스틱’에게도 끊임없이 변화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그는 ‘잠시 길을 잃었다고 해서, 영원히 길을 잃은 건 아니’라는 대사를 관객들에게 던진다. 이는 잠시 방황했던 자신과, 또 원래 어리고 착했던 ‘미스틱’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지만, 정상인들까지도 아우른다.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다.

반면 매그니토는 전형적인 ‘저항하는 자’다. 살아남기 위해 맞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위 ‘적자생존’과도 같은 사고에 젖어 있다. 이런 사고의 명분 중에는 ‘동족 보호’가 크게 자리잡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매그니토는 자신을 막으려는 ‘동족’ 로건까지 죽이려 한다. 이는 동족 보존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매그니토의 일그러진 욕망일까, 아니면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

우리나라처럼 ‘강자 대 약자’ ‘다수 대 소수’라는 대결구도가 뚜렷한 나라도 드물다. 이는 약자와 소수를 마치 ‘돌연변이’처럼 취급하는, 강자와 다수의 횡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다른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약자와 소수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은 과연 찰스 자비에인지, 아니면 매그니토인지들.

김진영 기자



영화 <엑스맨>의 한 장면



찰스 자비에(왼쪽)와 매그니토(오른쪽)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왕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 T.(213) 383-2600
www.lapend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중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교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천왕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에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천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거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박승부 장로 1기2기,3기,4기 수료생 배출,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역물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할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입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중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예향선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mail. isaacdeew@hotmail.com

류중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의모습,성경적코이노니아,만인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물리사(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미(Maturing) 및선전(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박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주일학교오전11:00 Youth
오전 6:00 (토)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위하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치료를하며,선교평영을순종하는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323)930-0011,(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석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u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인병권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eec.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화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래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찬양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찬양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 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최희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플)
특별강성집회 오후 7:45 (다우나 채플)
금요강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플)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번영)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원로목사들 모여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



애틀랜타한인원로목사회 정기모임이 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애틀랜타 원로목사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4일(수)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정기모임을 가진 애틀랜타한인원로목사회(회장 최낙신 목사) 회원들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어수선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말씀을 전한 서삼정 목사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이 나라 또한 그렇게 세워졌다. 한국은 어떨까. 6.25사변 이후 엄청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 뒤에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서삼정 목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너무 오래간만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곤 했는데 언제가 부터 이 기도 제목이 빠져있음을 알게 됐다. 나도 이런데 '다른 목회자들은'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한국의 밑바탕이 얼마나 많이 썩어 있는지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은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이다"라며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서삼정 목사는 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부름 받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라고, 모세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뜨거운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바울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기도했다. 교회가 이를 확실히 하지 못할 때 이단이 생긴다. 문제가 된 구원과는 한국교회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단순한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라와 민족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의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 믿는 데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문제가 발생한다. 의인의 정신을 가지고 의인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김 앤더슨 기자

한인 이민교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타코마제일침례교회 '트루워십퍼스 12' 초청 찬양 콘서트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찬양콘서트 '트루워십퍼스 12'가 열렸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는 지난 4일 미국·캐나다·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비량 찬양선교팀 트루워십퍼스 12(True Worshipers 12, 리더 추길호 목사)를 초청해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다.

찬양 콘서트는 은혜로운 멜로디와 관현악 연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했으며,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온 성도가 주 앞에 예배자로서는 시간이 됐다.

추길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첫 사람으로 돌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자'며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삶의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공연은 역동적인 찬양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었고, TW 재즈밴드의 찬송가 재즈 버전, 플루트와 바

이올린, 색소폰 연주 등 정통 클래식 음악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특히 줄리어드 음대와 피바디 음대 악장을 역임하고 뉴욕클래식필리플러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는 조유진 음악 선교사가 바이올린과 보컬로 함께 해 콘서트의 감동을 더했다.

트루워십퍼스 12는 전세계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퍼져 있는 6000여 이민교회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활동하는 찬양 선교팀으로, 한국과 미국에 걸쳐 주요 찬양 사역을 담당해 오던 추길호 목사가 2002년 시작했다.

트루워십퍼스 12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영성, 전문성, 탁월성을 가지고 팀원들의 미니콘서트(클래식, 팝, 재즈)와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새로운 성가곡 이곳에서 배우세요

성가곡에 관심있는 각 교회 성가대 및 지휘자, 반주자들을 위한 교회음악 세미나 'Choral Reading Session'이 6월 27일(금) 오후 7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열린다.

애틀랜타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안태환)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교회음악 전문 출판사(유빌라테)의 발행인 유일 전도사가 나선다.

유일 전도사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강사를 역임했으며 부천시립합창단 상임단원, 숭실OB 부지휘자, 소리지기 앙상블 리더, LISMS 예술 총감독 겸 LISCS 지휘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



강사 유일 전도사

다. 이번 세미나는 유빌라테 출판사가 발행한 신간 성가합창곡들을 중심으로 성가대를 위한 새로운 곡을 읽어보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신간 악보 2권이 증정되기도 한다.

문의: 678-350-4680

김 앤더슨 기자

세례 요한의 최후, 마켈라우스의 산정(山頂)

워싱턴한인목회연구원 6월 정기모임



워싱턴한인목회연구원 6월 정기모임이 3일 여정크리스천헬로우십교회에서 열렸다.

워싱턴한인목회연구원(원장 손갑성 목사) 6월 정기모임이 지난 3일 여정크리스찬헬로우십교회(담임 최윤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최윤환 목사는 친구와 중간시대의 역사를 고증하며, "세례 요한의 최후:마켈라우스의 산정(山頂)"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최 목사는 "마켈라우스(마케루스) 요새는 사해 북단에서 남쪽으로 약 21km, 그리고 사해에서 동쪽으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700m 정도의 산봉우리인데 언덕 꼭대기는 사해 해수면에서 1100m 높이에 있으며 언덕 주위로는 사방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다. 마케루스는 유다의 하스모니아 왕 알렉산더 안네우스(Alexander Jannaeus, BC103-BC76년 재위)가 나바테아(Nabatea) 왕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원전 90년 경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며, "건축의 귀재라고 불리는 헤롯 대왕(Herod the Great, BC37~BC4 재위)은 요르단 동쪽 지역을 견제하고 유사시 피신할 수 있는 요새이자 별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원전 30년에 마케루스 요새를 재건했다. 헤롯대왕이 죽은 후, 로마는 유다 영토를 분할하여 장남 아켈라우스(Archelaus, BC4-AD6 재위)는 유다와 이두매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영주가 되게 하고,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 BC4-AD39년 재위)는 갈릴리와 요르단 동편

베레아를, 그리고 빌립보(BC4-AD34 재위)는 베타네아, 트라코니티스, 가우라니티스, 파네아스, 아우라니티스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 마케루스 요새가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할 무렵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시작했으며 안디바에 의해 감금되고 참수됐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다. 특별히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고대사」에서 세례 요한이 참수된 장소가 마케루스 요새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자(마14:4, 막6:17-18) 이에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노리다가 헤롯의 생일날 춤을 취 헤롯에게 기쁨을 선사한 딸의 도움을 받아 세례 요한을 참수했다고 한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율법에 어긋난 혼인 관계를 꾸짖은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원한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 최후의 죽음을 당한 곳이 바로 마케루스 요새였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범수 목사(총무)의 사회, 조남홍 목사의 기도, 정영만 목사의 설교, 윤정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 문의: 410-292-9410(손갑성 목사) 301-537-8522(김범수 목사)

한시적인 물질과 명예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붙들어야

헤드럴웨이선교회 부흥성회 개최



헤드럴웨이 선교교회의 부흥성회가 최동주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헤드럴웨이 선교회(담임 박연담 목사)는 지난 5일 최동주 목사(분국 석천제 일교회)를 강사로 "축복의 보고"란 주제를 가지고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최동주 목사는 '교회와 성도가 가진 소중한 의미와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은혜와 사명' 등을 강조하며 "헤드럴웨이 선교회와 이 땅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감사가 넘쳐야 한다"며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성도가 너무도 귀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시대 축복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

신 은혜와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이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땅의 한시적인 물질과 명예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신다"고 권면했다.

헤드럴웨이 선교회 부흥성회는 오는 8일(주일)까지 계속됐으며 마지막 날 오후 2시에는 "교회란?"이란 제목으로 제직 수련회가 있었다. 김브라이언 기자

실로암한인교회, 무료여름학교 후원을 위한 사랑 나눔 콘서트

애틀랜타 지역 실로암한인교회(담임 신윤일 목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준비한 무료여름학교 후원을 위한 '사랑 나눔 콘서트'가 8일(주일) 오후 8시 열렸다.

이번 콘서트 웰리스트 김미리, 플루티스트 유지영, 테너 천영준, 바리톤 이재식, 소프라노 홍승희, 피아니스트 백계원, 최지선, 박유영, 김정은, 최희진, Joy Trio, 애틀랜타기독교합창단(단장 강석원)

등이 출연해 청중들의 귀에 익숙한 곡들을 감미롭게 연주했다.

환영사를 전한 실로암한인교회 신윤일 목사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수년간 지속해 왔던 무료여름학교를 위한 후원 음악회가 개최됨을 감사히 생각한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앤더슨 기자

O.C./앨버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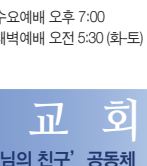
오병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여름축성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찬양 오후 7:30 장미안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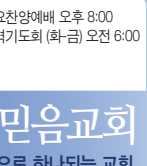
민경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	--

박용덕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허규담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	---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김한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	--

남상국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 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 (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	--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2:30 EM예배 오전 10:00 (FC재배) 오후 12:3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cpc.org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10:45 EM장미예배 오후 12:45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	---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인예배 (수) 오후 7:30 성령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F. (949)857-9242	지사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2부 오전 7:30 매일 오전 6:00 (화-금)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과 기도와 사랑의 열매로 귀를 열어 주시길...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	--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임영민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초등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축성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	--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최국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 주 (토) 오전 10:00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담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	---

김기홍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사회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	---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i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	---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	---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캐주얼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장,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세계 최초의 캐거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Medical Product Name : Mirapharm-22
FDA NDC Number : 58912-2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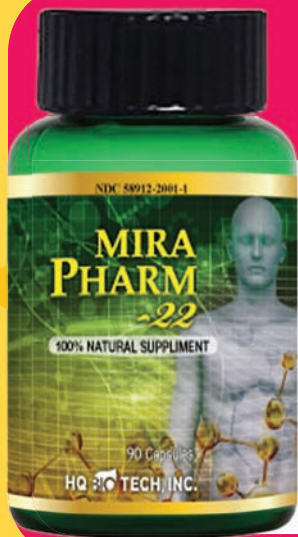
Duns Number : 688502046
Pin Number : cGfFh5Ec

위 정보들은 미국 FDA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들로
제품 제조허가 번호, 제품명, 국제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장 설립허가 번호들입니다.

이와 같이 2013년 6월 12일 미라팜-22는 100% 천연유기물질로써 미FDA 등록 연구소에서 행해진 AOAC 976. 26GC, EPA 200.7, CDFA 1991 PUB, pH테스트, 유기염소의 살충제 & PCBs (안전테스트), 17 중금속, 영양 함유물과 라벨링에 근거하여 식품으로 안전함을 확인 증명 받았으며, 그 이후 2013년 8월 1 일에 미FDA에 일반의약품[NDC (OTC DRUG)]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품 제조허가번호와 공장 설립허가번호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까지 획득해 합법적으로 제조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적의 약(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90캡슐 / 한 달분 / 한 병
Made in USA

미라팜-22의 일반의약품 등록 합법성은 미국 FDA의 아래
사이트를 가셔서 상표명이나 NDC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er/ndc/dsp_searchresult.cfm



미국 FDA NDC 일반의약품 등록 인증서
(FDA NDC REGISTRATION CERTIFICATE)
<아시아 본부 발행>



기능성 식품 안정성 테스트 확인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IRMATION
FOR TEST PARAMETERS)



FDA 확인해보세요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로 검색

22세기형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UNAPPROVED DRUG OTHER란 Marketing Category Name은 승인 안 된 의약품이란 뜻이 아니라 FDA에 이미 등재된 약제 목록에는 없는 신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다른(OTHER) 의약품이란 의미이며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져 FDA에 등록된 의약품입니다.

가정의 달 효도 세일!

미라팜 3병 구입시
HQ구연산 프로모션 중 1가지 선택
소비자 가격 \$400

<p>프로모션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 \$400 \$100</p>	<p>프로모션 B 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 \$380 \$100</p>	<p>프로모션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 \$400 \$100</p>
---	---	---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유기물질이면서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된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로 등록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 NDC(OTC Drug)로 인증 등록된 첨단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 후 5일 - 11/5/2013 복용 후 25일 - 11/25/2013 복용 후 77일 - 1/16/2014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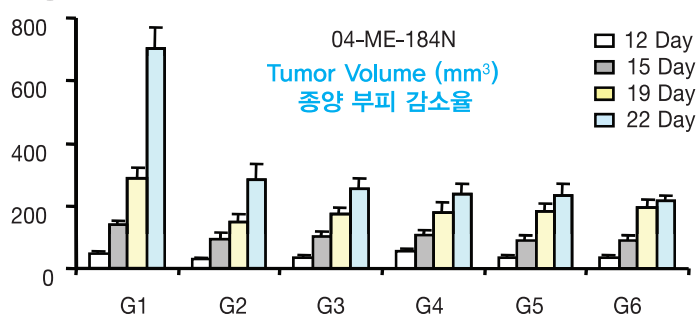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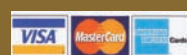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률 %	0	59.5	64.3	66.6	67.1	69.6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의 FDA 인가된 비임상 테스트를 거쳐 나온 것이며 자세한 데이터(64페이지)를 원하시면 본사를 방문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동성애자들의 축제 '퀴어 퍼레이드' 강행

맞은편에서 '반대 국민대회' 열던 기독교인들과 마찰 일기도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동성애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교회연론회 제공

연휴 기간인 7일 오후, 서울 신촌 일대에서 예정대로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Festival)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추모 분위기에도 강행된 행사는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실제로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회회의'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주최측은 도로 한가운데에 갖가지 부스를 차리고 전시와 이벤트, 판매 등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갖가지 무지개색 장신구와 페이스 페인팅으로 꾸민 채, 남남 또는 여여 커플로 보이는 이들이 손을 잡고 도로를 활보했다. 일부 남성들은 반나체로 '프리허그'를 하기도 했고, 속옷만 입고 나온 여성도 눈에 띄었다. '무료 익명! 종합 성병 검사', '성노동자도 노동자일 뿐이다(Sex Work is Work)' 등의 팸플릿도 눈에 띄었다.

외국인들도 많았다. 거리에서 네 명 중 한 명은 외국인들이었으며, 이들도 때를 지어 다니며 포즈를 취했다. 당초 주최측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해외 참가자는 도쿄 퀴어퍼레이드 기획단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한 외국인 초청공연자는 '키핑아웃'의 의미를 담은 노래'라며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은 영화 <겨울왕국>의 주제곡 '렛 잇 고(Let it Go)'를 부르기 시작했고, 참가자들은 어느 때보다 환호했다.

특히 한국성공회와 섬돌향린교회 등이 함께한 '퀴어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퀴어한 기독교인 여기 있다'는 현수막을 내건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인 연대(차세기연)'도 퀴어문화축제에 힘을 보탰다. 성공회 참가자들은 무지개색 성공회 목

주를 팔거나 성공회 소개 전단을 나눠줬고, 섬돌향린교회 성도들은 임보라 목사와 성가대 가운과 스톨을 입고 행진했다.

또 '퀴어 퍼레이드와 함께하는 축복대성회'라는 이름으로 축복송과 예배찬양 등을 기타로 연주하면서 함께 노래했다. 이를 목격한 반대측 기독교인들이 격분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반대측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등의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으며, 축제 참석자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주여, 저 호모포비아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으리으리한 사랑' 등의 피켓을 들었다.

퀴어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사진 촬영에 극도로 민감해 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 사진 촬영은 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며, 심지어 사진 촬영 중도 아닌, 사진기를 든 채 지나가던 한 시민에게 다가가 촬영물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

반대편에선 세월호 참사 추모 콘서트

이날 같은 장소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콘서트'가 진행됐다. 퀴어문화축제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 행사가 진행되는 연세대 학생들과 기독교인들, 청소년미래발전소 등에서 '신촌 동성애 축제와 퀴어 퍼레이드 반대 1만명 국민대회'를 기획한 것. 이에 신촌로터리에서 유펙스 앞 사거리까지는 퀴어문화축제가, 사거리에서 장천감리교회까지는 추모 콘서트가 각각 진행됐다.

기독교인들은 콘서트 전 퀴어문화축제 무대를 꾸민 사거리 바로 앞에서 홀리라이프 등의 주최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예배는 신촌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와 홀리라이프 이요나 대표, 한국복지선교연합회 박영률 회장 등이 주도했다. 송준길 목사(가톨릭&교황 정제알리기 운동연대)는 설교에서 "저들을 반대하기에 앞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먼저 철저히 회개하자"고 당부했다.

이요나 대표는 "저는 동성애 바(bar)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다. 죄송하다"며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여기서 축제를 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자"며 "우리는 기도할 뿐 저들을 저지해선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전했다. 예배는 박영률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국민대회를 기획한 김광중 학생은 "선교사들의 일이 서려 있는 신촌 땅이 동성애로 젖어들면, 전국 대학가 곳곳에서 동성애를 당연하게 여기며 지지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전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안타까워 하고 있는 이때 축제와 카퍼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3천여 명이 관람한 추모 콘서트에서는 팸플릿 가수 최의성 씨를 비롯해 박현상 씨의 색소폰, 연세대 음악학과 'MY', 정다운 씨의 판소리 공연 및 퍼포먼스, 코드밴드 등이 공연을 펼쳤다.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개막 무대와 축하 공연을 진행한 후, 오후 6시경부터 카퍼레이드에 나서자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로 통로를 시도하면서 한때 양측이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콘서트를 기획한 김광중 학생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해산할 때까지 철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대웅 기자

하나님 나라 열망한 1만 기독교 청년



이 성회에서 자리를 가득 메운 청년들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The Holy Spirit(이하 THS) 성회가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는 약 1만명의 청년들이 모여 뜨겁게 예배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THS는 기독교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영적 성장을 통한 사도행전적 복음 증거와 기독교 문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 각 분야 크리스천 멘토의 삶을 통해,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성회에서 1부 전체강의 강사인 오대원 선교사(한국 예수전도단 창립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선교사는 특히 "통일된 코리아를 만들 수 있는 세대는 여러분"이라며 "대한민국의 통일은 정치적 문제도, 경

제적 문제도 아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통일을 향한 청년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2부 각 분야별 강의 후, 3부 연합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를 주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4가지 복이 함께 온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4가지 복으로 △포로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영의 눈을 뜨다 △놀린 것에서 자유하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참된 평화, 기쁨, 자유가 넘쳐난다"고 강조했다.

THS는 청년들의 사랑 실천과 사회적 기여를 지향하고 있다. 이날 성회에서는 특별히 세월호 참사로 아파하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성회에서 걷힌 헌금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8회 THS 성회에서는 전 청년이 한 끼를 급식, 성금을 모아서 방글라데시 급식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태진 기자

승실사이버대학교, 교역자 장학제도 마련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고등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승실사이버대학교(총장 한현수)가, 교역자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위 취득을 원하는 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승실사이버대는 2014학년도 2학기에 입학하는 신·편입생 중 목사·강도사·전도사 본인, 그 배우자 및 직계 자녀, 그리고 목사 추천 교인에게 최대 매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혜택으로 제공한다.

교역자 본인의 경우 장학신청서와 함께 노회·총회·교회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소속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의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인의 경우 교인증명서와 추천받는 목사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한편, 승실사이버대는 오는 7월 3일(목)까지 2014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며, 고졸 학력 이상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과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학과는 6개 학부 18개 학과로, 한국어문화예술학과, 실용영어학과, 중국어언어문화학과, 평생교육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회계학과, 엔터비즈니스학과, 디지털디자인학과, 컴퓨터 정보통신학과, 융합정보보안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이다.

자세한 입학안내는 승실사이버대학교 입학홈페이지(<http://go.kcu.a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 02-828-5501)

송경호 기자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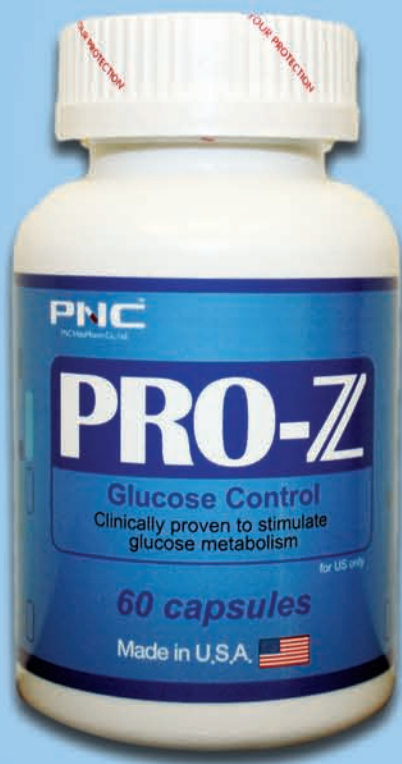


**교회 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 한국 30만병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3병 \$200 6병 \$372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했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을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을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고,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인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을 복원하고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아연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지는 소의 전립선 추출물(CHP)과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연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WHO is he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FDA 신약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으며(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 조만간 만족스러운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또,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지
환자 후기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 셀러 모집중

PRO-Z USA
미국 판매처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하나님의 성호와 그 밖의 호칭들(4)

4) 아웨의 뜻

(1) 존재자 및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인 이 “아웨”란 말이 뜻이 있는가? 있다면 무슨 뜻인가? 이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일지된 의견이 없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뜻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름 자체가 불가사의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 중의 하나가 W. F. Albright이다.

그런가 하면 상당수의 학자들이나 목사들은 그것이 “존재” 또는 “존재자”를 뜻한다고 말하나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말이 곧 하나님을 뜻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러 경우에 “아웨”와 “하나님”이란 두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많은 경우에 그 복합형 “아웨 엘로힘”(אֱוֶה אֱלֹהִים) 즉 “하나님 아웨”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42:5에는 “하엘 아웨”(חֵל אֱוֶה)란 형태가 나오는데, 그 정확한 뜻은 “(그) 하나님 아웨”이다.

만일 “아웨”가 하나님을 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란 말을 중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창세기 1장 그리고 6장에서는 “엘로힘”이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4장과 5장에서부터는 “아웨”가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7장 이하에서는 “아웨”와 “엘로힘”이 서로 번갈아 단독으로 또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친히 지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분에게 이름을 지어준 분이 따로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란 말의 개념에 어긋난다. 철학적으로 “하나님”이란 완전한 최

고의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지으셨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만일 그 이름에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인간이 알 수 없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뜻 모를 이름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 또는 힌트를 주셨다. 그러한 힌트를 출3:13-5에서 찾을 수 있다.

출3:13절에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하리이까?”라고 하나님께 물으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고 대답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라고 말씀하셨다.

14절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고 15 절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웨”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다시 말해 마치 조금 전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다. 만일 이 두 이름이 같은 뜻을 지니고 있거나 서로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스스로 있는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자”라고 번역된 이름이 “아웨”란 이름의 뜻을 푸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אֲחֵי אֲשֶׁר אֲחֵי)이다. 이 말을 영어성경은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말 번역보다 원문에 더 가깝다. 하지만 이 영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who의 선행사는 명사나 대명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I am”은 하나의 문장 즉 절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אֲחֵי אֲשֶׁר אֲחֵי)란 히브리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아쉐르”(אֲשֶׁר)는 관계대명사이고 “에흐예”(אֲחֵי)는 그 선행사이다. 그런데 “에흐예”(אֲחֵי)는 하야(אֲחֵי) 동사의 미완료 1인칭 단수이다. 다시 말해 동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선행사로 쓰인 동사가 동시에 “아쉐르”(אֲשֶׁר) 다음에 오는 부문장의 동사로도 사용되었다. 문법적으로 보다 적합한 히브리어는 “아니 후 아쉐르 이흐예”(אֲנִי אַחֵר אֲשֶׁר אֲחֵי)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가 되고 영어로 번역하면 “I am he who is”가 된다.

그런데 구약 특히 모세5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철학자 필론은

이 말이 “존재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고, 그것은 이름으로 기술될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이름을 “아니 후 아쉐르 이흐예”(אֲנִי אַחֵר אֲשֶׁר אֲחֵי)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장인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אֲחֵי אֲשֶׁר אֲחֵי)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아마도 “에흐예”(אֲחֵי)라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고 모세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אֲחֵי אֲשֶׁר אֲחֵי)란 문장을 또 다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에흐예”(אֲחֵי)만을 사용하신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에흐예”(אֲחֵי)는 위에서 말한대로 “이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야”(אֲחֵי) 동사의 미완료 1인칭 단수형이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비단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제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미완료뿐만 아니라 완료형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흐예”(אֲחֵי)라는 “하야”(אֲחֵי) 동사의 미완료형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막론하고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려는 사실인가 아니면 출애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이름과 위에서 살펴본 “아웨”란 이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이다. 이 질문은 “아웨”란 이름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은 서로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고쳐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뜻이 다른 두 개의 이름을 갖고 계시다고 상정하기 힘들다. 만일 하나가 부족해서 두 개를 가지셨다면 “하나님의 특성은 여러가지인데 왜 여러 개를 갖지 않으시고 하필 두 개만 가지셨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고대 바빌론의 신 마르둑(Marduk)은 그 이름이 50개나 되었고, 이집트의 신 레(Re)도 많은 이름들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방 신들과는 달리 “아웨”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가지셨다. 이것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특성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특성이 있으나 그 본질은 항상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웨”라고 하신 대신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אֲחֵי אֲשֶׁר אֲחֵי), 또는 줄여서 “에흐예”(אֲחֵי)라고 하신 경우는 오직 출3:14 한 곳 뿐이다.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아웨” 또는 “아웨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고 이 둘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거나 아니면 하나는 다른 하나의 특수한 측면을 나타내거나 또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에흐예”는 “아웨”란 이름의 한 측면을 말해 주거나 아니면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이름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출3:14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אֲחֵי אֲשֶׁר אֲחֵי) 또는 “에흐예”(אֲחֵי)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인 15절에서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웨”라고 말씀하신 사실이다.

<계속>

마가의 다락방과 사랑방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제가 한국사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백화점 저 구석

에 있는 가장 싼 한국산 텔레비전을 보던 것이 어제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자 제품은 가장 값비싼 고급 제품이 되었습니다. 한류는 세계적인 문화 코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직 어두운 구석이 많이 남았지만, 조국의 발전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사랑방, 사랑채 전통을 소개하였더니, 그 주에 방문하신 한 집사님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과거를 기억하여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과수원을 하

서 넉넉한 편이었죠. 제게 가난한 사람을 시장터에서 데려오라 하셨어요. 갈 곳 없는 거지를 데리고 오면, 할아버지는 제게 용돈을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들을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용돈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소망이 있는 걸인을 데려 오면 더욱 좋아하셨어요.”

이스라엘에도 섬김의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사랑방입니다. 실제로는 마가의 어머

니가 소유한 사랑방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여기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차례나 이 사랑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내신 사랑방! 제자들이 흠리지 않고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던 사랑방!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던 은혜의 사랑방!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사랑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유대교 랍비와 제사장들의 본거지인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임재하신 성령님은 기도의 다락방으로 오셨고, 이 사랑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만 아니라 구역예배가 드려지는 성도들의 집이 성령충만의 사랑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가 이 사랑방에서 자라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21세기의 마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콧물빼기 시범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체험사례1 : 9세 여아

이 환자는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다.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 여대생

오랜 시간 비염과 코 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로,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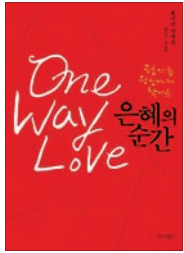


신간추천

은혜의 순간

틀리안 차비진 | 터치북스 | 2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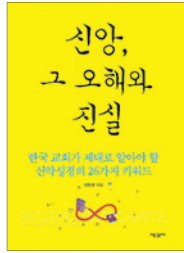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 은혜는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베풀 의무 없는 자가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러브레터.



신앙, 그 오해와 진실

이민규 | 새물결플러스 | 346쪽

신약성경을 토대로 성경과 신앙생활, 교리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26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속 시원한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제 한국 교회가 전도나 부흥, 성장이 아니라 진실한 말씀, 십자가 복음 등 '말씀의 회복'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말씀의 능력

강준민 | 두란노 | 288쪽

말씀 묵상으로 잘 알려진 저자가 고난 중에 체험한 '말씀의 능력'을 10가지 측면으로 조명했다.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 적다고 말한다. 나를 살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단련하며, 그 능력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보자.



속이 뽕 뚫리는 기도

김소진 | 베다니출판사 | 272쪽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토설기도>를 글로 풀어낸 데 이어, 다른 이들에게 토설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난 3년간 상담과 문의를 거듭한 결과물이다. 성경의 답과 실제 사례들, 현장의 간증 등이 담겨 있다. '가슴이 뽕 뚫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기도'에 대한 저자의 간증.



REVIEW

빌리 그레함의 70년 사역, 그 마지막 메시지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음전도자.”

40년 전 한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는 현재 90대 후반의 고령으로 위독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 메시지만큼은 여전히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치 갈렙의 '노익장'을 보는 듯하다. 벌써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표방한 책이 몇 권째 나왔지만, 진짜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 모르는 이 책에서 그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노래하고 있다.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The Reason for My Hope: Salvation)>의 설교 8편에서 그는 평생 이야기했던 복음과 구원을 변함없이 설교하지만, '한물 간 원로 목회자의 철 지난 방식'이 아니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흡인력이 있고, 강력하다. 각 편에서 그는 먼저 독자들을 향해 질문한다.

“구조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있다.” “좋은 이야기를 훌륭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 영화 분석가는 속량(redemption) 때문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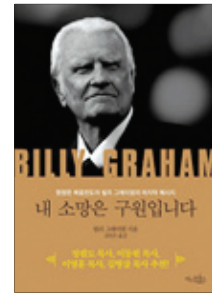
고 말한다.” “죄 개념이 사라졌는가? 당신은 이 질문이 나 같은 설교자에게서 나왔으리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니다.” “누군들 승리하는 팀에 들길 싫어하겠는가? 나는 지금 승리 대신 패배를 선택하려는 사람만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독자는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8편의 설교를 다 읽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사영리'를 모두 들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본론에 앞서 '소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현 시대에 대한 진단과 영적 처방이 통찰력 있고 간결하게 녹아 있다. “소망은 선물이다. 자신을 불확실성에서 깊은 확신으로 이끌어 주는 소중한 것이다. 소망이 오면 절망이 떠난다. 세상은 불확실성에 관한 퍼즐을 이루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오늘과 미래에 관해 우리를 아주 확실한 곳으로 이끄는 길은 하나 뿐이다.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은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믿

는 확신으로 넘친다. 소망은 과학, 의학, 정부, 기술에 있지 않다. 소망은 우리의 삶을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인 유익을, 흐릿해 보이는 보화에서 솟아나는 유익을 안겨주는 엄청난 선물이다. 그레함 목사는 소망을 “매일 우리를 에워싸는 자연의 숨결”, “바짝 마른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 속에 있는 것” 등 낭만적으로 묘사한 후, 마지막으로 말한다.

“소망은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는 절대적 확신이다. 너나 없이 사랑받는 사람들을 잃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아픈 마음에 소망은 위로를 준다. 소망은 참아 내고, 설득하며, 승리한다. ...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그분은 세상의 유일한 열여 구원의 빛이 당신의 삶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셨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불확실한 내일을 헤쳐나갈 것이다.”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 빌리 그레함 아드폰테스 | 340쪽

“종교”가 아닌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메시지도, 최근 복음주의권 목회자들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 어떤 종교도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죄와 죄책감과 수치를 깨닫고 자신의 필요를 기록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이다(203쪽).”

무엇보다 큰 소망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다.

그레함 목사는 “그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악(惡)이 또다시 승리하는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언급한다.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에 기초한 소망과 사랑만이 해답이다. ‘최종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고, 다시 오실 왕은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만이 희망이다.

끝으로 그레함 목사는 재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심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산해야 한다 △스기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꾸시도록 내어 드려야 한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L.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4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

- 2014. 8.18~8.29 - 이스라엘 단기선교(10박11일) \$1,999
- 2014. 9.1~9.6 - 한국 선교지(순교지) 성지순례(5박6일) \$1,799
- 2014. 11.3~11.12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2,599
- 2014. 11.3~11.14 -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개국(11박12일) \$2,899
- 2014. 11.10~11.17 - 터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4. 11.10~11.19 - 터키, 그리스 2개국(9박10일) \$2,599
- 2014. 11.10~11.22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5월~7월 등록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수와 합리적인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세요?

모세의 출애굽의 땅! 예수님의 부활의 땅!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그 땅!

바로 그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과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성령의 땅을 밟기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오른쪽 안내와 같이 금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을 참고하시고,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순교자 주기철 목사와 아들 주광조 장로의 이야기

주기철 목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유승준 | 홍성사 | 392쪽

“여보, 따뜻한 송늬 한 사발이 먹고 싶소.”

주기철 목사가 평양 형무소에서 마지막 면회를 하면서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 기나긴 수감 생활과 잔혹한 고문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의 앙상한 육신은, 목을 축이고 속을 덥혀줄 따뜻한 송늬 한 사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십자가 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온몸으로 맞서다 해방 1년을 앞두고 스러져 간 순교자.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의 모습이다. 그는 순양원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자이다. 하지만 이 정도가 전부이다. 순교 이전의 목회와 그가 감내해야 했던 여러 아픔들,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 갔는지 등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다. 하다 못해 비록 유골은 없지만, 서울 동작에 위치한 국립현충

원에 그의 묘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은 주기철 목사 순교 70주년을 맞아, 이를 안타까이 여긴 전문 작가에 의해 쓰였다. 저자는 유족들의 육성과 다양한 자료들을 섭렵하여 주기철 목사 부자(父子)의 삶을 입체적으로 완성했다. 특히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를 가장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故 주광조 장로의 삶도 함께 조명하고 있다.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저자는 “주기철 목사는 피를 흘려 신앙의 절개를 지켰지만,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그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부담스럽게 여겼다”며 “지금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도, 그의 증거자 주광조 장로도 없지만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한 이들의 이야기는 곧 한국교회 사요, 순교사이며 살아있는 믿음의 전승이므로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 순교 70주년 추모예배가 지난 4월 13일 후손인 주승중 목사가 시무하는 주안장로교회에서 거행됐지만,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예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의 호를 가진 ‘소양(蘇洋) 주기철(朱基徹) 목사의 원래 이름은 주기복(福)이었다. 그는 오산학교에서 세례를 받은 후 이름을 바꿨는데, ‘기독교를 철저히 신앙한다’는 의미였다. 진해 웅천에서 평북 정주 오산학교로 유학을 떠난 주

기철은 졸업 후 험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1915년 ‘조선예수교대학’ 상과대 2기로 입학했지만, 안질이 심해져 낙향하고 만다. 이후 1919년 만세 운동을 벌이다 헌병대에 연행되기도 했으며, 이듬해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기로 한다.

192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한 주기철은 당시 지역별로 찢겨 있던 학교 분위기를 일신하고, 양산음교회에서 조사(지금의 전도사)로 사역하기 시작한다. 아이러니하지만, 함께 공부하던 이들 중에는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 가결을 선포한 흥택기가 있었다. 이후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를 담임한 이후 아내의 소원과 두 번째 아내 오정모와의 혼인으로 1936년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한다. 초량교회 시절 그는 말씀에 입각해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고, 조직을 정비하여 당회와 제직회를 확장했으며, 유치원을 설립해 교육에 힘쓰기도 했다. 그는 강단에서 철저히 복음을 고수했다. ‘민족의 광복’보다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산정현교회가 무너져 가는 조선 교회의 마지막 그루터기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방침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신사참배 거부와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설교는 거거서 나왔다. 아내 오정모 집사의 신앙도 못지않



어린 주광조를 안고 있는 주기철 목사의 모습(홍성사 제공)

었다. 자녀들은 모두 도망가고 가정 형편도 궁핍했지만, 약한 소리와 앓는 소리 대신 감옥에 있는 남편을 면회한 자리에서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당부했다. 주 목사의 입관예배에서도 조용히 일어나 비장한 얼굴로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주기철 목사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는 순교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며 살아야 했다. 해방 후에도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도움의 손길 자체

를 멀리해야 했다. 평양 장현교회에서 목회하던 큰 형인 주영진 전도사는 아버지를 따라 6·25 전쟁을 앞두고 순교했다.

저자는 “주광조 장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음 세대에게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기철 목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큰 형님의 순교를 통해 이 땅에 순결한 신앙의 전통을 잇게 하신 하나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라며 “그가 없었더라면 주기철 목사의 순교 신앙과 정신은 상당 부분 잊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

미주기독교방송, 윤문선 화백 ‘돌아온 탕자’ 전시회 개최



윤문선 화백의 작품(참좋은교회 제공)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의 실체다.” 독일 신학자 폴 틸리히의 말처럼 최근 전도와 사역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선교다. LA 미주기독교방송(대표 남철우 목사)은 개국 16주년을 맞아 윤문선 화백을 초청해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8가와 후버에 위치한 나성동산교회(한기형 목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교회에 갤러리를 마련해 작품을 전시하고, 연극과 찬양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해 온 윤 화백은 30년 전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을 때 심각한 의료사고로 산모의 생명이 위독할 때에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겠다”는 서원기도를 드렸다. 그 응답으로 아이와 산

모 모두 건강을 회복했으며 그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 현재 광명시 참좋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는 50년 전 중학교 미술부 활동을 계기로 미술을 전공 후,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가 1974년 첫 개인전을 개최하며 30년간 화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참좋은교회의 담임인 그는 교회 내 설치한 갤러리와 탁구장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고 교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역주민

들을 위한 섬김을 실천한다. 윤 화백은 대전집례신학대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조이선교회 이사장으로 청년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미주기독교방송은 남가주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도시에서 AM과 FM 2개 채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 미주기독교방송국 사이트 :

www.lakcfn.com

▷ 전화 : 213-383-6800

주디 한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질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제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금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금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이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 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시온마켓 내 **치우차우만두**

찐빵 고기만두 김치만두
야채만두 물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임신 중 트살 방지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자궁축, 하혈)

우울증
관절염
원형탈모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또감사선교회 김하중 전 주중대사 초청 부흥회 열어... 최장기 대사 된 비결은 '정직' 과 '용서'

“대통령님, 기도해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5월 30일(금)부터 6월 1일(주일)까지 또감사선교회(최경욱 목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 주중대사 김하중 장로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대사 중 최장 기간인 6년 반 동안 주중대사를 지낸 김하중 장로는, 정부가 파견한 대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파견한 대사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몸으며 공직에 임한 것이 그 비결이라 밝힌다.

“어떻게 6년 반 동안 주중대사로 있었나?”란 질문에, 그는 “중국을 사랑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중국인을 축복해 달라고 매일 기도했다”라고 답하며, 부흥회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LA 땅을 축복하라. 그것이 비결이다.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라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흥회 마지막 날 김 장로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 통일을 위한 자세와 이를 위해 필요한 덕목인 ‘용서’와 ‘정직’에 관해 전했다. 먼저, 중국이 앞으로 겪게 될 몇 가지 현상에 제시하며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희생이 지닌 가치 못배워

“중국에는 중산층이라 불릴 만한 사회적 층이 없다. 앞으로 중산층이 증가하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또 인구 정책으로 인해 2025년이 되면 25세 이하들은 모두 외동이다.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국과 앞으로 보게 될 중국은 다를 것이다. 이들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다. 굉장히 이기적, 공격적, 투쟁적이다. 일례로, 중국이 우리에게 축구를 못 이긴다. 한국보다 인구 수도, 연봉도, 축구팀도 많으나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 중국 축구선수들은 기술이 특출하나 자기 몸을 사리기 때문에 절대 다치지 않는다. 소환제, 소공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 매우 걱정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가 된다고 말하나 모두가 사실이 아님을 안다. 경계심을 갖기 위한 것일 뿐, 중국의 체제가 미국을 따라 올 수 없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갖게 하려는 서방국가의 전략이다.”

중·북 관계 긴밀하지 않아

김 장로는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세 번째 무역국으로 꼽히며 지경학적으로 한국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이 ‘같은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까울 것’이라는 일반화된 믿음도 뒤집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북한과 가까운 것을 우려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력이다. 중국 사람들은 돈, 경제력을 중시한다. 중국은 “중간자로서 최대 이익을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재작년 북한의 일년 예산은 62억 달러, 한국의 35번째 기업의 일년 매출액과 같다. 한국은 3천억 달러 북한의 50배다.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봤을 때 이 둘은 비교할 수 없는 나라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은 60억 달러나, 한국은 2천 3백억 달러다. 또 북한에는 한자가 없다. 50대 이하 북한 사람들은 전혀 한자를 모른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이며, 문화적 소통이 어렵다. 사회주의 국가는 권력세습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세습제도에 대해서도 중국은 비판적이다.”

“중국을 전혀 무시워할 필요가 없다. 현명하게 대비하면 된다.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다. 한반도 맞은편의 동부 연안지역은, 미국에서 13시간, 유럽에서 8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간다. 동부 연안지역에서 뿔어져 나오는 부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빨아들이고 있다. 그 블루오션 속에 무궁무진한 틈새시장이 있다. 우리나라만한 틈새시장이 있다. 중국을 축복해서 중국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제헌국회 때 이미 통일 위해 기도

그는 여호수아 서의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수1:6)는 말씀을 인용하며 “통일이 오기 전 많은 지각변동, 환란, 시련이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하고 나갈 수 있다”며 통일이 멀리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는 감리교 이윤영 목사의 국가를 위한 기도로 막을 열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다. ...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



김하중 장로가 또감사선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 원컨대 우리 조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옵소서.’ 그로부터 66년이란 너무도 긴 시간이 흘렀다. 남북통일이 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려면 한국이, 교회가, 가족이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

자신 반대한 비서관 위해 축복

그는 통일이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이전에 개인의 차원에서 ‘용서’를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반대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했다.

“나를 비판하는 자를 용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간증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에 왔을 때, 외교부 장관으로 나를 부르고 싶어 하셨다. 10월 말, 청와대가 발표한 외교부 장관 후보에 전부 내 이름이 들어갔다.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자리로 가게 하십시오’라 기도했더니 들어가지 말라고 답하셨다.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여성 외교관에게 장관에 임명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부탁을 했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안보실장으로 결정됐고 곧 이를 발표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전화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지 말라 하셔서 난처했다. 다음날 뉴스에서 안보실장으로 다른 사람을 발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찾아와 ‘절대 김하중 대사를 안보실장으로 부르려면 안된다’며 항의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나를 반대한 비서관들에게 너무 고마워 그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하실 때 나의 적들을 통해서도 구하신다. 남들이 방해

해서 못했나?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이기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다음 정권 때 통일부 장관으로 사용하려고 그때 제외시킨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게 왜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예다.”

누가 대통령에게 자네처럼?

두 번째로, 정직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가를 증거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됐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의전비서관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의전비서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에게 총리나 대법원장, 외교부장관 등이 오면 이를 보고하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하루에 수없이 들어가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기도했다. 한번은 기도를 하고 보고 드려야 했는데 기도를 안했다. 그래서 ‘대통령님, 죄송한데 잠시 나갔다가 오겠습니다’라고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왔다. 몇 번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지만 절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셨다.”

“또 대통령님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만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사이라며 만나게 해 달라고 했지만 나는 ‘이 사람은 의무차관이 만나도 충분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시면 언젠가 반드시 대통령님 명성에 폐를 끼칠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3번 정도 반대했다. 어느 날 외교부 수석부 장관이 내게 전화를 하셨다. ‘아니, 대통령께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다면서요? 나이가 스무 살이나 위인 대통령께서 젊은 비서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시간을 비워 뵙겠습니다’라고 하자 대통령이 뜻밖에도 ‘김 비서관, 자네 아주 훌륭해. 지금 누가 대통령에게 자네처럼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하잖아. 그런데 자네가 직위를 걸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나에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3년 8개월 동안 저는 계속 ‘안된다’고 말했다.”

“의전비서관에서 수석비서관이 되고, 3년 8개월 만에 주중대사가 됐다. 직업에 관한 물이 있다. 99%는 대사로 승진하면 먼저 후진국에 간다. 그 다음에 중진국에, 그 다음에 선진국에 간다. 맨 마지막으로 최고

의 한 두 사람이 주미대사, 주중대사가 된다. 그러니 여러 사람이 대통령을 찾아와 이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네가 누군지를 보여줘. 그래서 김대중이 사람 잘 뽑았다는 말 듣게 해 줘’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통곡을 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서 중국에 가서 6년 반을 지냈다. 대한민국 대사 중에서 가장 최장기간이다. 그렇게 3명의 대통령을 모시다 돌아왔다.”

미국의 약화가 한인에게겐 기회

그는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날 한인 크리스천과 그들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창45:7-8)

“요셉이 얘기한 게 뭐가? 바로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미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온 게 아니다. 왜 실망하고 좌절하며 미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나? 요셉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가? 형들이 자신을 팔아 버려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변명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올리신다.”

“미국에서 1970년대 흑인들은 어땠나? 그러나 40년 후,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 기도하는 데에 달렸다.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백인들이 강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뚫고 들어가기 힘들겠으나 약화되면 한국인이 올라갈 자리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곳은 북한이다.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회개의 영, 사랑의 영이 북한의 지도자에게 임하도록, 그들이 극단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풀어놓은 디아스포라들이 북한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디아스포라가 가장 북한과의 접촉점이 된다. 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주디 한 기자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료계 종사자(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 입 학 : 수시 입학 상담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 · 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9047 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June Special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New!



**(FULL OPTION)
ALL NEW
2015 GENESIS
SEDAN**

\$429 ^{+TAX}
36
Mon.

MSRP: \$55955 / SELL: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New!



**2014
HYUNDAI
SONATA GLS**

\$89 ^{+TAX}
36
Mon.

MSRP: \$22,350.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45,170
^{+FEES}

Stock# DU070328, DU069919
MSRP: \$60,170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